



제오르그 바젤리츠 가르니 호텔

서울 포트힐

7 October—27 November 2021

Thaddaeus Ropac
London Paris Salzburg Seoul

타데우스 로팍 서울 개관전

게오르그 바젤리츠

《가르니 호텔》

서울 포트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22-1(포트힐 빌딩), 2층

2021년 10월 7일 - 11월 27일

타데우스 로팍 서울(Thaddaeus Ropac Seoul)이 2021년 10월 6일 게오르그 바젤리츠(Georg Baselitz)의 신작 전시와 함께 개관한다. 바젤리츠의 작업은 2007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개인전에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소개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타데우스 로팍 서울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12점의 회화와 12점의 드로잉 신작을 선보인다. 동시대 가장 중요한 예술가 중 하나로 꼽히는 바젤리츠는 20세기 후반 독일 예술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으며, 1960년대 이후 국제 미술계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서울 전시는 10월 파리 풍피두센터(Centre Pompidou)에서 예정된 작가의 대규모 회고전과 맞물려 개최될 예정이다.

“선교사들의 유랑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의 이미지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한국과 독일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들이 사람들 사이에 전해진다. 이곳의 예술과 그곳의 예술은 두 개의 거대한 기념비이다. 서로 비교될 수는 없지만 웅대한 그런 기념비 말이다. 오늘날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그림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흥미진진하다.”

- 게오르그 바젤리츠, 2021

바젤리츠는 고유의 예술적 어휘들을 통해 형식적 발전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지속적으로 갱신해왔다. 작품 속에서 그는 자신의 방대한 전작(全作)에 등장한 모티프들을 재고하고 또한 예술사에 대한 절묘한 레퍼런스를 작품에 통합시키는데, 이를 통해 회화라는 매체의 의의를 성찰해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새롭게 선보이는 대형 회화 연작에서 그는 50년이 넘도록 자신의 예술적 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온 부인 엘케(Elke)의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

바젤리츠의 신작들은 추상화되었지만 여전히 감각적인 엘케라는 다분할된 인물을 비정형적 공간 속에 고립되어 매달린 모습으로 보여준다. 바젤리츠는 자신의 주제를 추상화하고 낯설게 만들지만, 강렬한 표현주의적 필치로 대상의 핵심을 담아낸다. 그는 형식에서 내용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69년 이래 작품의 구도를 거꾸로 뒤집어 았는데, 이를 통해 전통적인 회화의 원칙을 탈피하는 새로운 표현방식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식적 접근은 자신에게 너무나 친숙한 엘케를 그리는 과정 중에 인물의 초상 속으로 잠입할 법한 어떠한 조화나 아름다움을 봉괴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의 작품이 추상과 구상 사이를 항해하는 결과물로 나아가게 한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가르니 호텔(hotel garni)’은 프랑스어로 저가 호텔을 의미하는데, 이는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의 작품 <아비뇽의 처녀들(Les Demoiselles d'Avignon)>에서 착안된 발상이 작가 특유의 유머러스 한 연상의 과정을 거쳐 고안된 제목이다. 여기서 작가는 단순 언어 유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예술적 선조 피카소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인 <아비뇽의 처녀들>에서 나타난 대치적 구성과 비관례적 여성성을 소환한다. 바젤리츠가

Thaddaeus Ropac
London Paris Salzburg Seoul

작품의 제목에서 피카소의 작업을 레퍼런스로 삼은 또 다른 예로는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아비뇽(Avignon)> 연작이 있다. 바젤리츠는 1960년대 초반부터 파리를 방문하기 시작하면서 피카소를 비롯해 장 포트리에(Jean Fautrier), 장 뒤뷔페(Jean Dubuffet), 외젠 르로이(Eugène Leroy) 및 볼스(Wols)의 작품을 접했으며, 이들의 작품은 그의 예술적 접근법에 큰 영향을 준 실존주의를 품고 있었다.

가공되지 않은 과감한 필치로 점철된 이 특정 예술가들의 미학은 이후 바젤리츠의 작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의 최신작에서 엘케의 지배적인 물리적 존재감은 색의 전이를 통해 감상자에게 전달되며, 이때 우연의 요소가 작품에 개입된다. 이러한 기법은 앤디 워홀(Andy Warhol)의 로르샤흐(Rorschach) 회화 연작 및 블로티드 라인(Blotted Line) 드로잉을 연상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 표현주의, 프랑스 앵포르멜, 그리고 미국 추상회화의 자유로움을 넘지시 암시하기도 한다.

바젤리츠는 엘케를 다룬 최근작들에서 회화적 재현에 대한 고민, 주체성의 불가피성, 반려자를 통한 자아의 재현 등의 화두를 다루면서 자신의 작품 속에 실존주의적 함의를 도입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항상 작품 안에서 무언가가 나를 방해한다는 사실과 싸워왔다. 나를 항상 방해했던 그것은(이제는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소위 ‘실존적’이라 불리는 것들이었다. 내 안에 나를 점령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작품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는 사실 말이다.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실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했다. 이 노력을 근 60년간 지속해왔는데, 지난 20년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다 잘 해결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게오르그 바젤리츠와 그의 스튜디오, 2021
© Elke Baselitz 2021

게오르그 바젤리츠에 대하여

60여 년에 걸친 예술 인생을 통해 게오르그 바젤리츠는 정형화된 단일 양식에 한정되길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예술적 실천을 새롭게 해왔다. 그는 회화, 조각, 판화, 드로잉을 포함해 자신이 작업하는 다양한 매체의 관습을 재정의하고 있다.

1938년 작센주의 도이치바젤리츠(Deutschbaselitz)에서 한스 게오르그 케른(Hans-Georg Kern)이라는 본명으로 태어난 바젤리츠는 동독에서 조형예술대학(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을 다니다가 ‘정치사회적 미성숙’이라는 이유로 제명당하고, 이후 1957년부터 1963년까지 서독에서 학업을 마쳤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이름을 출신 고향의 지명으로 바꾼다. 이듬해 베를린의 베르너&카츠 갤러리(Galerie Werner & Katz)에서 열렸던 그의 첫 개인전은 스캔들을 일으켰고, 관계 당국은 풍기문란을 이유로 회화 몇 점을 압수했다. 추상 회화의 우세에 저항하려는 그의 단호한 구상적 작품들은 감상자에게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충격적인 이미지들을 담고 있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자신의 기념비적인 인물 시리즈인 〈영웅(Helden)〉을 그렸고, 〈분절(Frakturbilder)〉의 파편화된 형식을 통해 회화적 관습의 해체를 도모했다. 1969년에는 처음으로 작품 구도를 거꾸로 뒤집기 시작했고, 이후 이 새로운 형식이 바젤리츠 작품의 주된 특징이 되었다. 바젤리츠에게 이것은 추상과 구상 사이를 항해하며 내용의 형식을 비워내는 방법이었으며, 이를 통해 그는 철저하게 전통적이라고 간주되었던 매체에 혁신을 불러일으킨다. 1970년대에는 손가락을 직접 이용한 촉각적 그리기 방식을 통해 색과 재료의 보다 자유로운 활용을 추구했고, 이러한 특성은 1980년대에 등장한 그의 표현주의적 색면에서 부각되어 나타난다.

바젤리츠에게 1980년대는 중대한 시기였는데, 우선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와 함께 독일을 대표하여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면서 처음으로 조소 분야를 시도했다. 또한 이 시기에 런던 왕립 예술 학교(Royal Academy of Art)의 《회화의 새로운 정신(A New Spirit in Painting)》(1981), 베를린 마틴-그로피우스-바우(Martin-Gropius-Bau)의 《시대정신(Zeitgeist)》(1982), 미국 순회전이었던 《표현: 독일의 새로운 예술(Expression: New Art from Germany)》(1983) 등 영향력 있는 유수의 전시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적 명성을 획득하기 시작했다. 이는 1995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에서 개최된 첫 미국 회고전으로 이어진다.

혁신을 향한 충동은 바젤리츠의 예술 인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2006년부터 지속해 온 〈리믹스(Remix)〉회화 작업이다. 여기에서 바젤리츠는 과거 예술 작품들의 도상학을 고찰하고 자신의 고유 모티프들을 재탐구한다.

바젤리츠의 작품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파리 풍피두센터(Centre Pompidou), 베를린 국립미술관(Nationalgalerie),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Stedelijk Museum),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영국 테이트 갤러리(Tate Gallery) 등 전세계 유수의 미술관에 소장되어있다. 2011-12년 그의 조소 작업을 망라한 회고전이 파리시립현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de Paris)에서 개최되었다. 2016년에는 〈영웅(Heldenbilder)〉과 〈새로운 타입(Neue Typen)〉연작이 프랑크푸르트의 슈테델 미술관(Städel Museum)에 전시되었고, 이 작품들은 이어 스톡홀름 현대미술관(Moderna Museet), 로마 팔라초 델레 엑스포지오니(Palazzo delle Esposizioni), 빌바오 구겐하임(Guggenheim Bilbao)을 순회했다. 2018년 바젤리츠의 80세 생일을 기념하는 대규모 개인전이 바젤 바이엘러 미술관(Foundation Beyeler), 워싱턴 허쉬혼 미술관(Hirshhorn Museum), 프랑스 콜마르의 운터린덴 미술관(Musée Unterlinden)에서 열렸다. 2019년 그는 파리 아카데미 데 보자르(Académie des Beaux-Arts)의 회원으로 선정되는 명예를 얻었으며, 베니스 아카데미아 미술관(Gallerie dell'Accademia)에서 회고전을 가진 최초의 생존예술가가 되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
타데우스 로팍 서울 seoul@ropac.net